

벤투호, 이란 원정 첫 승 역사 쓰나... 무관중 경기 확정

오늘 오후 10시30분 한국-이란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 당초 여성 포함 1만명 입장 예정이었으나 무관중으로 이란 꺾으면 A조 선두로 도약...이란 원정 승리 없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이란 원정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무관중 경기라는 호재가 생겼다. 이란축구협회는 11일(한국시간) 한국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 4차전을 무관중으로 개최한다고 했다. 한국과 이란의 4차전은 12일 오후 10시30분에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한국이 2승1무(승점 7)로 조 2위, 이란이 3승(승점 9)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 카타르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한 판이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원정팀의 지옥'

이라고 불린다. 한국은 이란과 통산 A매치 상대전적에서 9승9무13패로 열세다. 이란 원정에선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란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피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현지 언론 '테헤란 타임즈'에 따르면, 당초 이란축구협회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1만명까지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여성 입장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관중을 결정했다. 이란 정부, 아시아축구연맹(AFC) 등과 협의가 늦어진 탓으로 전해진다. '테헤란 타임즈'는 "아시아의 강자 한국과 빈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건 이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 시리아와 3차전에서 후반 43분에 터진 손흥민(시리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극적인 2-1 승리를 거뒀다. 이어 9일 전세기를 통해 이란 테헤란으로 떠나 현지 적응에 돌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선수들의 장거리 이동 피로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춰 전세기를 운영했다. 정몽규 협회장이 동행했다. 한국은 이번 원정에서 이란을 꺾으면 조 선두로 올라설 수 있다. 비기더라도 끈질기운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는 것만으로 긍정적이다. 무승부를 통해 승점 1점을 노리는 게 전략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우리는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노

력할 것이다. 무승부로 끝난다고 하면 좋은 수도, 어떤 의미에선 나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점권할 것이다. 무승부를 노리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뉴스



KFA

고진영·임성재, 미국 골프무대에서 동반 우승... "뿌듯하다"

고진영 "지난주 아쉬움 극복하고 우승 기쁘다." 임성재 "두 번째 우승하기까지 힘들었다" 소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고진영(26)과 미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임성재(23)가 같은 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쁨을 토했다. 고진영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폴드 마운틴 리지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4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쳐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은 시즌 3승째를 올려 세계랭킹 1위 벨리코르다(미국)와 함께 시즌 다승왕 경쟁을 펼치게 됐다.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고진영은 우승 상금으로 45만 달러(한화 약 5억3800만원)를 받게 됐다. 고진영은 ▲박세리(25승) ▲박인비(25승) ▲김세영(12승) ▲신지애(11승)에 이어 한국인 선수로는 5번째로 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올랐다. 또한 고진영은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하며 16년간 깨지지 않고 있는 아니카 소렌스탐의 역대 최다 연속 60타수 라운드 신기록과 타이틀이 됐다. 고진영은 "이번주 우승은 정말 기쁜 우승이다. 지난주 너무 아쉬웠던 경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주에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많았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너무 훌륭한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도 10승이고, 여기에서도 10승이 됐다. 디펜딩 챔피언인 자격으로 나선 대회에서 20번째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1년 7개월만에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임성재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24언더파 260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쓸어담은 임성재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했다.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에서 PGA 투어 데뷔 첫 승을 수확한 임성재는 1년 7개월만에 다시 한 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임성재는 "첫 승은 PGA 투어 50번째 대회에서 했고, 두 번째 우승은 100번째 대회에서 기록했다. 정말 하늘에서 결정해준 것 같다. 열심히 잘 준비했지만 두 번째 우승을 하기까지 힘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진영과 동반 우승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선수의 남녀 동반 우승이 드물다. 진영이 누나 정말 축하드린다. 정말 뿌듯한 거 같다"고 활짝 웃었다.

브라질 네이마르, 은퇴 시사... "카타르가 마지막 월드컵"

A매치 113경기 출전해 69골 터뜨린 브라질 대표 공격수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내년 카타르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네이마르는 11일(한국시간)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다즈(DAZN)

이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 "카타르월드컵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월드컵 이후 정신적으로 더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벗겠다는 것인지,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이라고 언급하면서 카타르월드컵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2009년 산토스(브라질)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네이마르는 2013년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 2017년부터는 프랑스 리그1의 최강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현재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킬리안 음바페(프랑스)와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브라질이 자랑하는 현존 최고 공격수다. 통산 A매치 113경기에 출전해 69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대표팀에서 우승과 인연이 깊은 편은 아니다. 2013년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이 유일하다. 23세 이하(U-23) 선수들이 출전하는 2016 리우올림픽에선 와일드카드로 합류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스

양궁 김제덕, 전국체전 단체전·혼성전 銅2개



구은수 대장, 히말라야 미답봉 마리양봉 세계 초등 성공했다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에서 주관한 '2021 마리양봉(6528m) 세계초등원정대'가 네팔 히말라야 미답봉인 마리양봉 세계 초등에 성공했다. 노익상 대장과 구은수 대장이 이끈 이번 원정대는 9월8일 한국을 떠나 약 15일에 걸쳐 5000m급 고개 3개를 넘는 고된 상행카라반을 진행하며 고소적응 후, 27일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루트 파인딩 및 등반 물자수송 후 5700m 지점에 전진캠프를 구축했다. 지난 9일 새벽 2시 등반을 시작해 오전 9시 42분 전 대원 모두 마리양봉(6528m) 등정에 성공했으며, 10일 오후 9시 대원 모두 안전하게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 이번 등정 성공이 특별한 점은 그 리 높지는 않지만, 그동안 정보조차

없어 아무도 오르지 못한 미답봉이었던 이 봉우리를 원정대가 세계 최초로 올라 신루트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초등에 도전한 이번 원정대는 노익상 원정대장을 비롯해 구은수 원정대장, 정재균 대원, 이명희 대원, 임정희 대원, 엄태철 대원, 백종민 대원, 정재진 대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고, 2020년 1월부터 약 1년 8개월에 걸친 힘든 훈련을 묵묵히 버티며 이번 원정을 준비했다. 특히 구은수 원정대장은 1996년 도부트 ▲맥킨리(6194m) 등정 ▲시사파(8027m) 등정 ▲에베레스트(8848m) 등정 ▲낭가파르밧(6125m) 등정 ▲피크41(6648m) 세계 초등 등 화려한 이력과 리더십으로 대원들을 이끌었다. 뉴스

2020 도쿄올림픽 2관왕 김제덕(17·경북고)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김제덕은 10일 경북 예천 진호양궁장에서 벌어진 전국체전 양궁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제덕은 이날 오전 조수빈(예천여고)과 조를 이뤄 나선 혼성 단체전 3-4위 결정전에서 광주체고를 5-4로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후에는 김제덕이 속한 경북일고가 남자 단체전 3-4위 결정전에서 경북고를 5-1로 물리치고 3위를 차지했다. 김제덕은 지난 7월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 '천재소년' 공사로 주목받았다. 혼성 단체전에 이어 남자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서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이번 전국체전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했지만, 이미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쟁겼다. 전날 30m, 50m, 70m에서 우승했고, 90m에서는 은메달을 손에 넣었다. 김제덕은 11일 개인전에서 또 한 번 금메달을 노린다. 뉴스

신생팀·주심 셀프 비디오판독 등 V-리그 관전 포인트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의 개막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리그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남자부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여자부는 오후 4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로 대장정이 시작된다. 정규 리그는 2022년 3월17일까지 6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관중을 연고지로 한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의 합류로 여자부는 6개 팀에서 7개 팀이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여자부의 팀당 경기수가 30경기에서 36경기로 늘어났으며, 남자부와 동일하게 7개 팀이 총 126경기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리그 3, 4위 팀이 펼쳐는 준플레이오프 실시로 포스트시즌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자부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창단

◇주심 요청에 의한 셀프 비디오 판독 정규리그 도입

셀프 비디오 판독은 엘리종리 주심이 최종 판정을 하기에 불명확한 상황이 판정될 때 시행하는 규칙이다. 이는 최근 의정부 도드람컵에서 첫 시험 적용됐다. 그 결과, 기존의 합의 판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이 가능했으며 시행 전 우려했던 팀 간 형평성 적용 여부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기에 이번 정규리그에서의 정식 도입을 결정했다. ◇대전, 광주 유관중 경기 추진 대전과 광주의 관중 입장이 실시될 계획이다. 현장 관람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더 많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대전 삼성화재, KGC인삼공사, 광주 페퍼저축은행 3개 구단의 흥겨운 응원도 기대된다. 연맹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등 새로운 방식에 맞춰 관중입장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